

여의도연구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여의도연구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김대식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간 대학에서 몸담아 왔습니다.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로 몇 년간 일하기도 했습니다만,
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에 몰두해 왔습니다.

이런 저에게 여의도연구원 원장이라는 자리는
매우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22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우리나라 정당사상 최초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연구원 가족 여러분과 함께 여의도연구원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든든한 싱크탱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보수우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고,
그동안 자랑해 왔던 이념과 가치가 허물어지고
국민들은 우리를 냉담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권을 잃었고 더 이상 기댈 곳 또한 없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구원 가족 여러분!

이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반성과 변화, 그리고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혁신의 깃발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당대표도 혁신의 대상’ 이라고 할 만큼
강도 높은 혁신과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처절한 반성과 변화, 그리고 혁신을 통해
보수우파의 이념과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정책혁신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리더를 양성하고 교육하는데 전력투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의도연구원의 정책비전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을 지향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가 공정하고 부강한 국가에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수의 가치를 정책 전반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다음 몇 가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의도연구원의 근본적인 체질부터 혁신하겠습니다.

여의도연구원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싱크탱크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찬사는 모두 잊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과 보수우파를 재건하겠다는
강한 의지만 남겨 놓아야 합니다.

새로운 인재가 끊임없이 모여들어
함께 나누며 연구하고, 눈부신 성과를 이끌어 내는
살아 숨 쉬는 혁신적인 조직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합니다.

둘째, 여의도연구원 내에 보수정책·인재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하여
보수우파의 저력을 한데 모으는
‘싱크 넷’ (Think-net)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의도연구원은
보수우파의 지식인, 연구소, 시민단체, 오피니언리더,
신선한 정책아이디를 가졌다면 누구나 참여하는
개방형 싱크탱크인 ‘정책 혁신위’ 를 구성하겠습니다.

보수우파의 기치아래 모두의 힘을 한데 모아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인재 네트워크를 완성해야 합니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보수우파의 새로운 이념과 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바로 세우는 ‘보수의 산실’ 로 자리 매김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정책지원, 협력 네트워크를 신설하여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보수정책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정책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연구원과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생산된 정책은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정책지원 기능을 신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 연구하며
완성된 정책을 입법화하고 시행되기까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행된 정책은 국민들에게 보수우파의 진심을 보다 가깝게
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넷째, 보수우파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를 양성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인 청년을 리더로 양성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 이들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선출직 출마자들이
보수우파의 이념과 가치관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연구원이 보수우파의 정체성을 바로세우고 전파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연구원 가족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혁신’이라는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이 길은 지난한 고통의 길이 될 것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살을 저미는 아픔도 뒤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보수우파는 과거 수많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으로
눈부신 성취를 일구어 내었던 저력이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써나갈 자유한국당의 미래,
그 시작은 여의도연구원 혁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책혁신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보수우파를 재건하는데
우리 연구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앞장서야 합니다.

씨줄과 날줄을 단단히 엮어 보수우파를 바로세우는 그 길 위에
저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 대 식